



▲ 黃東煥 해전유물발굴단장

▶ 「별황자총통」 공개 현장
 사진 왼쪽부터
 趙成都 해사 박물관장
 鄭吉男 해군 공보관
 黃東煥 대령



거북선 장착砲 「별황자총통」 발굴... 史實 입증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이 거북선에 장착해서 사용한 소형곡사포인 별황자총통(別黃字銃筒)이 발견됐다.

해군 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단장 黃東煥대령)은 8월 18일 경남 통영군 한산면 문어포 서북쪽 4백60m 바다밑에서 45도로 기울어진채 묻혀있는 별황자총통을 발견, 인양했다.

이 총통은 포신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銘文)에 거북선을 뜻하는 「龜艦」과 주조연대를 알수있는 「萬曆丙申」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있어, 임진란 당시 거북선에 장착된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萬曆은 명나라 神宗의 연호로, 萬曆丙申은 宣祖 29년(1596년)에 해당된다.

이 총통은 天-地-玄-黃의 4가지 총통중 가장 작은 황자총통의 일종이지만, 길이가 89.5cm, 무게가 65.25kg으로 보통 황자총통보다는 다소 크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 있었다.

문헌상에는 황자총통으로 한번에 철환 40개를 쏠수 있으며, 「피뢰전」이라는 불화살을 천보(약 8백m)가량 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것과는 달리 「龜艦黃字 驚敵船, 一射敵船 必水葬」이라는 7언시 명문이 새겨져 있다.

「거북선의 (별)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하고, 1발의 포를 쏘아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는 내용으로, 당시 조선수군의 결의에 찬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龜艦黃字」에서 알수있듯이 이 총통이 거북선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짐으로써, 거북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문헌뿐 아니라 일부이긴 하지만 「실물」로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최근 발견된 쌍둥(雙胴) 거북선 그림

